

[16] 이 순 신

이조 선조 때의 명장으로 자는 여해, 시호는 충무, 본관은 덕수, 영종추부사 변의 후손으로 아버지 이정과 어머니 초계 변씨의 세째 아들로 서울 건척동에서 출생, 어려서부터 용맹하여 전쟁놀이에는 항상 대장이 되었으며, 동네에 못마땅한 일이 생기면 그가 나서서 해결지음으로 동네 사람이 다 두려워 하였다. 장성하면서 그는 뜻을 무예에 두어 기사를 연습, 훌륭한 재능을 연마하였다.

1576년 무과에 급제하여 권지훈련원 봉사로 처음 관직에 나섰으며, 발포만호를 거쳐 1586년에 사복시주부가 되고 이어 조선 만호겸 녹도 둔전사의가 되었다.

이 때 순신은 국방의 정화를 위하여 병력의 증강을 요구하였으나 절도사 이 일에 의하여 부결되었으며 그 해 가을 적은 병력으로 호인이 침입하여 많은 양민을 학살하니 순신은 홀로 이를 맞아 싸워 포로 60여 명을 잡아드렸다. 이일은 피해의 책임을 순신에게 돌려 그를 옥에 가두고 사형에 처할 것을 상소하였으나 무죄가 판명되어 해임으로 그쳤다. 그 후 전라도 순찰사 이광에게 발탁되어 전라도 조방장, 선전관 등이 되고, 1859년 정읍현감으로 있을 때 유성룡에게 추천되어 고사리첨사로 승진, 이어 절충장군으로 만포첨사, 진도군수 등을 지내고, 47세 되던 해 전라 좌도 수군절도사가 되었다. 이때 그는 전쟁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미리부터 군사를 훈련하고 장비를 갖추어 이에 대비하였으며, 특히 거북선을 만들어 전쟁에 임하게 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 나자 그는 패장 원균의 요청을 받아 함대를 이끌고 적의 수군과 싸워 이를 도처에서 격파하였다. 즉 제1차는 옥포, 적진포에서, 제2차는 사천, 당포, 울포에서, 제3차는 한산도 안골포에서, 제4차는 부산포에서 적선을 모조리 격파하여 대승리를 거두었다. 특히 한산도와 부산포의 싸움은 유명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일본군은 결정적 타격을 받고, 순신은 완전히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이는 그의 위대한 지도력과 탁월한 전술로 인한 것이며, 조정에서는 위의 공으로 그에게 정현대부의 벼슬을 주고 최초로 수군통제사에 임명하였다. 그러나, 순신의 고을 시기하는 원균 일파와 일본의 이간책으로 1559년 2월에 서울에 압송, 고문끝에 사형을 받게 된 것을 판중추부사 정탁의 반대로 사형이 면제되어 4월 1일 권율의 휘하에서 백의종군하게 되었다.

순신을 대신하여 통제사가 된 원균은 안일과 방탕한 생활로 군비를 소모, 정유왜란이 일어 나자 일본군과 대항하여 싸웠으나 대패하고 전사하니 수군은 전멸상태에 빠졌다. 사태의 긴급함을 느낀 조정에서는 다시 이순신을 통제사로 임명, 적을 막게 하였다. 이대 그는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으나 이를 돌볼 겨를도 없이 임지에 도착하니 남은 배는 겨우 12척뿐이고 군대의 사기는 완전히 저락되어 있었다. 조정에서는 이 적은 병력으로는 적을 대항하기 어렵다 하여 수군을 폐하라는 명을 내렸으나 순신은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으며, 내가 죽지 않는 한 적이 감히 우리의 수군을 허술히 보지 못할 것이라는 비장한 결의를 표하고, 다가오는 전투를 기다렸다. 이리하여 8월 15일 적의 대부분을 명량에서 대파하여 다시 제해권을 장악하고 명나라의 건인이 거느린 5천의 수군과 함세, 위세를 떨쳤다. 적은 곤궁에 빠져 명나라 장군에게 뇌물을 보내어 화의를 꾀하였으나 순신은 이를 반대하고 도요토미가 죽어 일본군이 철수하자 마지막 결전을 시도하여 11월 18일 노량에서 적을 섬멸하였다. 그러나 이때 이순신도 적의 유탄을 맞아 장렬한 최후를 마치니 이 때에 그의 나이 54세였다.

유언에 따라 그의 죽음을 발표치 않고 끝까지 잘 싸워 적에게 막심한 손해를 입혔다. 순신은 그 지극한 효성 숭고한 인격, 위대한 통솔력으로 보아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며, 임진왜란 중 국가의 운명을 홀로 지탱한 민족적 은인이었으니 명나라 진 인도 그를 칭찬하고, 또 그 죽음을 듣자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 이 소식이 중앙에 알려 지자 선조는 특사를 보내어 이를 조문, 시호를 내리고 선무일등공신의 호를 주어 덕풍군에 봉했으며, 우의정 및 좌의정을 추증하였다. 고향에는 충신문을 세우고 정조때에는 영의정을 추증, 임금이 친히 지은 비문을 하사하였다.

이순신 장군은 지금으로부터 450여년 전 조선 12대 임금인 인종 원년 4월 28일에 한성부 건천동에 사는 한 가난한 선비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집은 가난하지만 엄격한 집안에서 태어난 순신은 굳고 정직하게 자라났다. 어려서부터 용맹하고 지도력이 강했던 순신은 마을 어린이들과 전쟁놀이를 할 때는 항상 대장이 되어 앞에 나아갔다. 그러나 마을에서 자기를 보다 나이가 어린 순신이 대장으로 나서는 것을 못마땅히 생각했던 아이들은 순신을 대장에서 몰아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순신을 대장에게 몰아내지 못하였다. 그의 작은 몸집에서 풍기는 위엄과 날카롭고 매서운 눈매에 그들은 감히 아무 말도 못하고 순신을 그들의

대장으로 섬기었다고 한다.

성장하면서 의로웠던 순신은 마을에서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였다. 마을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순신이 달려가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가 해결을 지어 주었다. 그래서 동네에서는 순신이 정의롭고도 두려운 존재라고 하였다.

장성하면서 그는 뜻을 무예에 두어 기사를 연습, 훌륭한 재능을 연마하였다. 1576년 무과에 급제하여 권지훈련원 봉사로서 처음 관직에 나섰으며, 발포만호를 거쳐 1586년에 사봉시주부가 될 때까지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겪었다. 47세가 되던 해 전라좌도 수군절도사가 되었다. 이때 그는 전쟁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미리부터 군사를 훈련하고 장비를 갖추어 대비하였다. 특히 이순신은 사사로운 것을 함부로 보아 넘기지 않아 거북선이라는 철갑선을 만들어 냈다.

어느날 오후 이순신은 관훈동의 한 친구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 친구의 집 마당에는 조그마한 못이 있었다. 이제독은 친구와 함께 마당을 거닐며 이야기하던 중 물가에서 갑자기 멈추어 섰다. 물 속에서 헤엄치는 많은 물고기 중에서 고개를 물 위에 내놓고 왔다 갔다 하는 작은 거북이가 그의 눈에 띄인 것이다. 그는 한참동안 그것을 뚫어지게 쳐다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제독은 그 거북이에서 암시를 받아 거북선이라는 철갑선을 만들기 시작했다.

선조 25년 3월 27일, 드디어 거북선이 완성되어 진수식을 가지는 날이 되었다. 구경나온 많은 사람들은 저런 무거운 쇳덩어리는 물에 뜨지 않고 가라앉을 것이라고 쑈군거렸다. 그러나 거북선은 예상을 뒤엎고 빨간 불을 내뿜으며 물을 헤치고 쏜살같이 나갔다. 그 후 보름이 지난 4월 22일 실제로 싸움에서 위력을 나타나게 되었다. 순신은 나라를 위한 지극한 충성과 청렴한 인격, 위대한 통솔력으로 한국 역사상에 없어서는 안될 인물이 되었으며 임진왜란 때는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몸을 바친 민족적인 은인이 되셨다.

이처럼 다급하던 시대에 분연히 나타나 나라와 겨레를 한 몸으로 구한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다.

이순신 장군 앞에 여지없이 패망한 쓴 잔을 들고 줄행랑을 놓았던 왜적들마저 역사상 위대한 인물로 손꼽는 이가 바로 장군이다. 백의 종군을 하면서 명령만 내리면 아무 말 없이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쳤다. 그래서 더욱 위대한지도 모른다. 장군의 충성심에 저절로 마음이 숙연해진다. 넓은 언덕이 있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 쌓여 들리는 소리는 아이들의 고향 소리와 칼 부딪치는 소리 뿐.

여기의 아이들은 지금 전쟁 놀이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 중이었다. 나이로선 글 공부를 할 때지만 문(文)보다는 무(武)쪽을 택해서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장군이 되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기에 오늘도 해가 저물도록 무술 연마에 여념이 없었다. 이윽고

"애들아 ! 오늘은 그만 하자."

하는 굼직한 음성이 들리자 아이들의 동작은 서서히 집을 향하여 걷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아까의 굼직한 음성의 소년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않고 다시 칼을 집어 들더니, 혼자서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유난히도 눈빛이 빛났고, 보통 아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넓은 도량터였다. 이 소년이 다름아닌 순신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순신을 전부터 시기 질투하고 있는 소년이 있었으니 그는 오늘도 순신의 뒤에서 순신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하면 저 놈을 골탕 먹일까? 무슨 짓을 해서라도 혼을 내줘야 해."

"그런데 어떻게 골려 줄까? 나한테 꿈쩍 못하게 해야 하는데....."

이튿날, 또다시 전쟁놀이를 하려고 모였던 소년들,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어제의 소년에게 옆의 소년이 다가갔다.

"너, 아까부터 뭘 생각하니?"

"상관마 ! 내가 기필코 혼내 줄테니까."

"아니, 누굴 혼내 준다는 거야?"

"재, 순신이 말야, 그냥, 안둘꺼야."

"왜 그래? 그리고 너, 함부로 말하지마. 순신이가 어떤 앤데....."

"뭐야, 순신이 놓이 원데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런 대화가 오고 갔던 날 저녁에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자리에서 혼자 무술 연마에 힘쓰는 순신 앞에 짓궂은 소년이 나타났다.

"야, 순신아... 너 아주 못쓰겠드라. 하는 태도며 말투가 영 내 맘에 안들어."

"그래서 애긴데 내일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너와 나는 실력대결을 하는 거다..."

하는 소년의 말에 일종의 안도감마저 드는 것이었다. 얼마전에 아이들한테 전해 들어서 알고 있었던 이 소년이 자기한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애기의 결과가 쉽사리 찾아와 주었기 때문이다.

다시 동편에서 동근해가 떠오른 날 빙 둘러 쌓인 아이들 속에서 두 소년의 실력 대결이 이루어졌다. 자기의 실력이 기필코 순신의 실력을 꺾어 승리감에 젖어야겠다는 짓궂은 소년과 얼굴에 만반의 미소를 띠우고 태연자약한 순신이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들의 생각한 바를 이루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딱 !"

"딱 !"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든 순신은 전력을 다하기 시작했다.

"이 소년의 실력은 대단하구나 !"

하는 생각과 동시에 소년의 헛점을 정통으로 찌르니 덕하는 소리와 함께 소년의 칼은 나뿔굴게 되었던 것이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소년의 칼은 나뿔굴게 되었던 것이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소년은 무릎이 저절로 순신앞에 꿇겨짐을 느꼈다. 이윽고 험악했던 공기가 가라앉자 아이들의 눈은 자연히 순신에게 쏠리게 되었다.

그러한 모든 것을 개의치 않은 순신은 잠시 주저하더니 무릎을 꿇고 있는 소년 앞에 칼자루를 던져 놓고, 소년의 어깨를 탁탁치곤 말없이 언덕을 내려 갔다. 멍하니 앉아 있던 소년은 패배감에서 오는 수치감과 순신이의 태도에서 오는 고마움이 한데 엉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내가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구나 ! 난 다만 아이들이 순신이를 존경하기에 그것이 아니꼬와서 해 본 장난인데...."

그리고 잠시나마 순신이를 미워했던 자신이 한없이 저주스러웠다.

이후 소년의 태도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순신이를 대할 때마다 항상 공손한 태도와 바른 말씨를 사용하니 옆에서 보고 있는 아이들까지도 놀랄 정도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순신 또한 그 소년에게 잘 대해 주니 그들은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깊은 우정을 갖게 되었다. 언제나 순신이와 그 무리들의 고향 소리가 맑게 산을 울리고 있었다.

소년 시절부터 언제나 침착하고 생각이 많은 장군이였다. 결과, 이 민족의 위기를 구하고 역사를 빛낸 성웅으로 떠받들게 된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영 관할인 발포 만호로 부임한 것은 그가 서른 다섯 살이 되던 7월이다. 그가 발포만호가 되자마자 그의 상사들은 대뜸 그를 죄주려고 애를 썼다. 당시 전라감사였던 손식이라는 자가 능주를 순시한 일이 있었다. 감사는 누구의 모략을 들었는지 발포만호 이순신 장군에게 즉시 능주로 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는 꼭 죄를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지의 일반적인 것에 대하여 상황을 설명시켰다. 그리고 발포의 진지의 배치에 대하여 그림으로 그려 표시 설명 하도록 명했다. 요즈음의 작전 상황도를 그리게 한 것이다. 이 갑작스런 기습 질문에 이순신 장군은 상세하고 정확하게 상황도를 그렸고 이를 굽혀본 감사는 도리어 자기의 양심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임오년 봄, 이순신 장군의 나이가 서른 일곱이었을 때, 중앙에서 군기검열관이 발포에 와서 군장비를 검열하고 그 결과를 임금에게 보고하기를 아주 나쁘다 하였다. 그리하여 이순신 장군은 파면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달라서 발포의 병기는 정말로 잘 되어 있었다. 이순신 장군의 기록에는 전날에 훈련원에서 부당한 지시를 상관으로부터 명령받았을 때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잘해 놓고도 파면이 되었다고 하였으나 그보다 중요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것은 오동나무에 걸린 슬픈 사연이다.

만포만호영의 뜰에는 오동나무가 한그루 자라고 있었다. 당시 수사로 있던 성박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내어 그 오동나무를 베어 가려고 하였다. 열빠진 전라수사가 잘 자란 그 오동나무로 자기가 즐길 가야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순신은 한마디로 안된다고 거절했다. 이 오동나무는 관청의 물건이다. 저것이 저만치 크기에는 많은 세월이 경과하면서 이곳을 거쳐간 많은 분들이 길러낸 것인데 개인의 사물인 가야금을 만들기 위하여 하루 아침에 베어 버린다. 절대 안될 말이다.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 보니,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쥐구멍을 찾아야 할 판인데 성박은 도리어 격노하였다. 그는 필시 이렇게 뇌까렸을 것이다.

"천하에 고약한 이순신 이놈, 고약한 놈!"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고약하고 패썹한 것은 전라좌수사 성박이란 자가 아닐까?

누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이순신은 처세술에 서투른 사람이라고 상사인 수사가 가야금을 좋아하는 눈치만 보이더라도 즉시 관물이건 뭐건 오동나무만 베어다가 바치면 자리가 안정되고 출세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이다. 그러나 일개 오동나무가 문제되는 것은 그 시대의 조류인 것이다. 아무리 정직하고 자기 직무에 정성을 다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실은 반포만호였던 이순신 장군은 간접적으로는 오동나무 사건으로 인하여 파면당하고 만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탄할 일이다. 예나 지금이나 부조리는 있었던 것 같고 이를 빨리 추방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사는 길이라 생각된다.

정의로운 사회구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표로 삼아야 할 것 같다. 공공물건이건 남의 물건이건 내 물건처럼 아끼는 생활태도가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어지고 행동으로 실천해야만 되겠다.

충무공의 애국애족, 염결무사의 정신에 머리가 숙연해진다.

남산골짜기부터 개나리, 진달래와 같은 봄꽃들이 싱그럽던 청춘을 지나, 하나 둘 나무에서 꽃잎들이 떨어지는 초여름 어느날 이었다.

가을이 아닐까 하는 착각을 만들게 하는 하늘에는 구름 한점이 없었다. 여수 앞바다 먼수평선이 있는 곳은 여기저기 고깃배들이 평화롭게 떠 있었다. 싱싱한 고기들이 갑판 위에서 날뛰고 어부들의 입에선 뱃노래가 저절로 흘러 나오기 시작할 무렵, 동쪽의 앞바다에서 갑자기 광 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듯하더니 맑은 하늘에 연기가 치솟았다. 어부들은 많이 들어온 대포 소리라 무심히 고개를 들어 동쪽 앞바다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예전에 보아 온 대로의 배에서 쏘는 대포가 아니라 이상한 것이었다.

전에 쏘던 대포는 큰 배위에서였고 그곳은 갑판 위라서 난간이 둘러져 있을 뿐이고 가리워진 것이 없어서 대포는 물론 쏘는 사람까지 다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의 배는 아니 배가 아닌 이상한 물체는 갑판이나 난간을 찾아볼 수 없고 지붕이 둘러져 대포는 옆구리에 달려 있었다.

"아니, 저게 뭐야. 물에 떠있으니 배 같긴 하나, 저런 배도 다 있냐?"

"아니 저거, 용대가리 같은데 연기가 나오네."

사람들은 낯을 잃고 바라보았다. 잠시 후에 그 물체의 문이 열리더니 이순신이 다른 배로 옮겨 댔다. 그리고는 그 물체를 둘러 보고는 만족한 미소를 지었다. 이순신이 신호를 하자 그 물체는 또 움직여 가면서 대포를 쏘기 시작했다. 사방으로 검은 연기와 불을 뿜어 대머물 위로 미끄러져 갔다. 장엄하고 능륜한 모습에 모여든 군중들이 함성을 질러 해변가는 삼시간에 소란속에 잔치를 벌여 놓은 듯 했다.

용의 머리에 거북이 몸통을 가진 그것이 바로 거북선이다. 천근 만근이 되는 쇳덩이가 내리눌러도 끄떡하지 않을 것 같은 철판선이다. 갑판이 없이 지붕을 만든 그 위엔 널판지로 두껍게 지붕에 엮고, 또 철판으로 붙여 총이나 화재에 끄떡없고 또 그 위에 뾰족하게 칼이나 송곳을 꽃아 지붕 위로 적들이 오르지 못하게 했다. 거북선 안에는 대포와 총을 마음대로 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그토록 철저하게 적선을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만든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이 직접 계속해서 고치고 다듬었다.

그러던 어느날, 부산 앞 바다에서 새까맣게 적이 몰려왔다.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인 것이다. 아무런 대책도 없던 우리 나라는 그저 앉아서 당하기만 할 뿐이었다. 정발 장군과 송상현, 신립 등이 목숨을 바쳐가며 용감히 싸웠으나, 워낙 허술한 장비와 갑작스런 일로 미처 대항도 못하고 허물어 졌다.

이순신은 선견지명이 있어 전쟁에 대항하기 위한 여러가지를 준비하고 있었다. 덕분에 이

순신 장군의 첫번째 싸움인 옥포해전에서 크게 승리했다. 이순신 장군은 사천지역이 위험함을 전해 듣고, 사천을 향해 갔다. 거북선을 앞세우고 쳐들어간 이순신 장군은 적군을 바다 한가운데로 몰고 갔다. 거북선을 적선 한가운데로 몰고 가서 양쪽의 옆구리로 대포를 쏘아댔다. 머리와 꼬리에선 시뵈건 불길을 내 뿜어 적들은 하늘이 어딘지 구별을 하지 못했다.

"무슨 배가 저래. 괴상한 것 다 보겠네."

적들은 다만 입을 딱 벌릴 뿐이었다. 우왕좌왕, 갈팡질팡, 적들이 흩어지고 배들이 침몰되었다. 첩판으로 덮어 놓은 거북선은 조총이나 불 따위에 끄떡도 하지 않았다. 왜군들이 안간힘을 다하여 대항하였지만, 그때 그때마다 거북선이 유유히 적선 사이로 떠 가며 적선을 침몰시켰다.

날이 저물어서야 격전은 끝나고 바다위에는 부서진 배들이 불타고 있었다. 왜군의 시체들로 인하여 바다는 피로 물들었고 부서진 조각배를 잡아 타고 도망가는 적군의 모습이 우스울 뿐이었다.

세종대왕은 어질고 현명한 임금도, 연산군, 광해군같은 폭군도 있었던 조선 또한 추잡한 당파싸움이 나라의 기둥을 무섭게 좀 먹고 뒤흔들었던 시대, 그러나 이 어려운 역사속에 거레의 빛나는 햇불이시었던 이순신 장군, 장군의 충성의 열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장군을 생각해 본다. 참으로 그는 캄캄한 거레의 수난길에 높이 쳐들린 민족의 햇불이요, 역사의 영원한 연류관이다.

학이 날개를 펴 듯

사천 앞 바다에서 승리를 거둔 이순신의 함대는 6월 1일 사량 앞 바다로 진을 옮겼다가 다시 그 다음 날에는 당포로 싸우러 나가게 되었다. 이 당포 선창에는 엿그제 사천에 와서 마찬가지로 20여 척의 왜선이 줄지어 들어서 있고 육지에는 왜구들이 산봉우리에 진을 치고 있었다. 적선 중 큰 배 한 척은 우리 나라 판옥선 만하다. 싸움은 시작됐다. 왜군들은 필사적으로 사격을 가해 왔다. 순천부사 권준이 적의 장수의 머리를 관통하니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왜적들은 일시에 산산이 흩어졌다. 이때 이순신은 영기를 휘둘렀다. 달아나던 왜적들은, 장졸이 일시에 쏘아 대는 화살에 모두가 바닷속에 잠기고 말았다. 이윽고 왜놈의 큰 배 20여 척이 부산으로부터 바다에 깔려 들어 오다가 이 광경을 보고는 줄행랑 쳤다. 6월 4일 이순신은 다시 당포 앞바다로 진을 옮겼다. 우리의 군사들은 병세가 외롭고 약했지만 울분을 참았다. 그런데 그날, 전에 연합작전을 펴기로 했던 전라 우수사 이억기가 오기를 갈망하던 차 정오에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찾아왔다. 연합 함대의 당당한 모습을 바라 보는 진중의 장병들은 기뻐 날뛰었다. 뜻이 맞는 두 장수는 통영의 한데목이란 곳에 진을 치고 지친 몸은 아랑곳 없이 밤새도록 완전한 전략을 짰다. 우리 수군의 연합 함대는 이튿날 아침에 출발하여 고성 당항포에 다다르니 왜놈의 큰 배 한 척이 판옥선 같았고 배위에 누각이 높고 그 위에 적장이 딱 버티고 앉아 있었다.

우리의 군사들은 이순신의 전략 아래 포구에 전선 4척을 숨겨둔 다음 나머지 배들로 하여금 진격하도록 명령했다. 한참 동안의 치열한 싸움끝에 왜선들은 저희가 불리해지자 육지로 달아 내려 했다. 이에 이순신은 왜선들을 포위했던 망을 터놓고 슬금슬금 후퇴하는 척하면서 왜군들을 넓은 바다로 차츰차츰 꺾어내기 시작했다. 왜선들은 이순신의 전략대로 쉽게 바다 한가운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순신은 갑자기 영기를 휘둘렀다. 이것을 신호로 우리의 함대는 일제히 뱃머리를 돌려 총공격을 개시했다. 이때 거북선이 적의 장선을 추격하여 배를 함몰시켰다.

이순신은 복을 울려 군사들의 기세를 북돋우면서 "한 척의 적선도 남김없이 쳐부수어라 ! "라고 외쳤다. 달아나는 적선을 일시에 쳐서 깨뜨리니 활을 맞아 죽는 자가 부지기수요 왜장의 목도 일곱이나 베었고 왜선은 불화살을 맞아 연기를 뿜으면서 남김없이 바닷속으로 사라져 갔다.

이리하여 5월 29일에 출전하여 6월 10일에 이르기까지 네 차례에 걸친 싸움에서 이순신은 싸움마다 적을 무찔러 모두 72척의 적선을 쳐부수었던 것이다.

7월 4일 찌는 듯한 한 여름 왜란이 일어난지도 어언 몇 달이 지났다. 연합함대와 이순신은 창신도 앞바다에서 지냈다. 그 이튿날인 7일은 무척 바람이 세게 불었지만 이순신은 굶히지 않고 함대를 이끌고 당포에 이르렀다. 긴 밤을 지내고 따가운 햇살을 받으며 이순신의 연합함대는 적선이 정박하고 있는 견내랑으로 진격해 갔다. 과연 그 곳에는 김천손이 재공

했던 정보와 같이 배 70여척이 기세도 등등하게 정박하고 있었다. 이순신은 장수들을 불러 명을 내렸다. "이제부터 주력함대는 포구와 섬 그늘에 숨어 있다가 내 지시에 따라라." 그리고 광양 현감 어영담을 불러 적의 함대를 바다 한 가운데로 끌어 내도록 했다.

어영담이 소식을 보내왔다. 이순신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이순신은 복을 한 번 띄어 주고 울었다. 그러자 우리 함대는 숨어 있던 배를 드러내며 진을 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학익진! 학이 날개를 펴듯 아름다운 자태로 적을 포위하는 작전이었다. 왜선들은 정신없이 공격하는 우리 함대에 연방 부서지고 적의 무리는 헤아릴 수 없이 죽어갔다. 그리하여 저녁 놀이 물들 때는 요행히 달아날 수 있었던 적선은 14척에 지나지 않았다.

만약 우리의 함대가 이 싸움에서 패했더라면 그들로 하여금 압록강까지 진격하게 되어 우리 강토를 고스란히 그들에게 빼앗겼을 것이다. 참으로 국운의 생사를 건 싸움이었다.

이 대전이 바로 그 유명한 한산도 대첩이다. 한산도 대첩은 물론, 장군은 언제 어디서나 나라를 위하는 일에는 용감하고 슬기롭게 처리해 나갔다. 정신을 잃을 만큼 어지러웠던 500년 역사는 온통 깜깜한 밤 하늘이었다. 그러나 그 밤하늘 같은 어렵고 어지러운 조선의 역사속에 큰별로 빛을 냈던 자랑스러운 성웅이 있었으니 그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다. 장군의 위대함과 충성된 얼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

나는 스스로 웃기를 여미지 않을 수가 없다.

한 바다에 가을빛 저물었는데.....

북한산에 단풍이 물드는 10월 4일 선조임금은 마침내 서울로 환도하게 되었다. 선조임금은 환도한 후에 이순신을 경상, 전라, 충청도의 수군을 총지휘하는 삼도 수군 통제사로 새로 임명하고 여지껏 맡아오던 전라좌수사의 임명 되던 날 그의 가까운 친구 하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한다.

"처음보는 나무가 있었지. 높이는 하늘에 닿고 가지는 사방으로 뻗어서 공간에 가득차고 가지마다 사람이 올라가 붙들고 있는데 그 수가 몇 천만 명인지 모를 정도였소. 그런데 웬일인지 그 큰 나무가 갑자기 흔들리고 뿌리가 뽑히며 넘어지려 하는 거야.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다.

"사람 살리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에선가 사람 하나가 나타나더니 몸으로 그 넘어져 가는 큰 나무를 떠받치니까 바로 서는게 아니겠소? 그러자 사람들은 마음을 놓았지요. 그런데 나무를 떠받친 사람은 다름 아닌 이순신이었던 말이지요. 그 친구는 아는 사람을 보면 그 생생했던 꿈 이야기를 되풀이하곤 하였다. 그 친구의 꿈은 들어맞는 것 같다. "나라"라는 큰 나무에 백성들이 매달려 있는데 그 나라가 크게 흔들린 것은 임진왜란이요 나무를 떠받쳤다는 것은 이순신이 나라를 구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환호성속에 이순신은 드디어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었다. 그는 한산도의 두울포를 삼도수군의 본거지로 삼았다. 그는 선박, 함정을 비롯한 각종 병기 제조 수리를 밤낮으로 진행하였다. 조총은 물론 대포와 군량미도 모두 준비해 나갔다.

이순신을 중심으로 누구나 한 마을이 되었다. 모두 싸울 태세가 갖추어 졌으나 답답하게도 명나라 진영이나 조정은 시간만 끌고 있었다. 거기다가 전염병이 돌았다. 이순신도 그 병으로 여러 날 고생하고 용감하기로 유명했던 조방장 어영담도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순신은 피눈물이 나도록 가슴이 아팠다. 이런 판에 원군의 심술은 날로 더하여 이순신을 혈혈한 데만 정신을 팔고 있었다. 비 내리는 밤이면 이순신의 한숨은 더욱 길어졌다. 맑은밤을 뜯는 눈으로 지새웠다.

한산성 달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끊나니

시조를 읊어 마음을 달랬었다.

한 바다에 가을빛 저물었는데

찬 바람에 놀란 기러기 높이 떴구나

가슴에 근심 가득 잠 못 드는 밤

새벽달 창에 들어 칼을 비추네

이순신은 한시 바빠 왜적을 몰아내 평화를 다시 찾고 백성을 평안하게 하겠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다.

선조 30년(1597년) 정월

명나라와 화의가 깨지면서 왜군은 또다시 많은 군사를 동원하여 난을 일으켰다. 이것을 정유재란이라 한다. 이런 어려운 판국에 뜻밖에도 이순신은 모함을 받아 죄인의 누명을 쓰고 서울로 잡혀가게 되었다. 수만 장령은 물론 각 지방 백성들도 줄줄이 몰려나와 길을 막고 통곡했다.

이순신이 떠난 후 한산도 진영의 모습을 변해갔다. 나라를 걱정하는 장군의 목소리 대신 원군의 술취한 잡소리와 기생의 목소리가 흘러 나왔고 적을 쳐부술 의견을 아뢰는 병사 대신에 아침을 일삼는 소리가 흘러 나왔다. 병사들의 마음은 흐트러지고 군기가 문란해지고 피난민이 하나, 둘 봇짐을 싸고 흩어졌다. 이것이 삼도 수군 본영의 새 모습이었다. 3월 12일 조정에서는 원군을 두둔하는 대신들의 의견에 따라 죄목을 내걸고 심문을 시작했다. 조정의 여러 공론 중 원로대신 정탁은 이순신을 살릴 것을 주장했다. 선조는 드디어 도원수 진중에 백의로 종군하라는 왕명을 내렸다. 그래서 이순신은 도원수 권율의 막하로 들어갔다.

선조 30년 7월 15일

원군은 칠천도 앞바다에서 크게 패하였다. 원군은 죽고 전라수사 이억기는 자살을 했다. 수군이 무너지자 조정은 앞길이 캄캄할 지경이었다. 이항복의 진언을 받아 선조는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하였다. 단 12척의 전선뿐이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뛰어난 전략으로 133척의 배를 맞아 31척은 파괴되고 또 나머지 배도 바다 밑에 쳐 놓은 쇠줄에 걸려 모조리 뒤엎었다. 이것이 바로 세계 해전 사상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유명한 "명량대첩"이었다. 그후에도 수군의 세력을 한시 바빠 키우느라 이순신은 바빴다. 그런데 어느날, 간밤에는 잠을 못이루다가 새벽에 겨우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다. 말을 타고 언덕위를 달리다가 말이 발을 잘못 디디는 바람에 그만 언덕아래로 떨어졌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세째아들 면이 와서 부둥켜 안으려는데 그만 잠이 깨었다. 종일 마음이 개운치 않은 그에게 아니나 다를까 고향 아산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면이 왜병이 촌가를 노략질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가 싸우다 전사했다는 것이다.

"장하다. 내 아들이!" 이순신의 두눈에 뜨거운 눈물이 뚝뚝 흘러 내렸다. 그 날 밤도 뜬 눈으로 밝혔다. 11월 19일 새벽녘. 힘을 기른 수군을 끌고 나갔다. 이때 경남 사천으로 부터 5백여 이 노량쪽으로 밀려 왔다. 이순신의 전력으로 관음포에 들어간 적은 독안의 쥐가 되었다. 그러나 명나라의 진인은 저희가 먼저 공을 세우려고 덮어놓고 공격해 쌍방이 처절한 격전을 벌여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왜군의 적장이 죽자 적군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어찌 뜻하였으랴! "음!" 뜻밖에도 이순신의 입에서 외마디 신음소리가 났다.

"방패로 내 앞을 가려라."

여느 때처럼 태연한 음성으로 황망히 몰려든 장병들에게 일렀다.

"지금 싸움이 한창 급하니 아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마지막 힘을 모아 이렇게 말하고는 잠자듯 눈을 감았다. 대승리 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큰 칼을 옆에 차고 우뚝서서 몰려오는 오랑캐를 무찔렀던 장군. 기세가 당당한 남해의 물결도 장군의 호령에 울고 울었다.

오늘날 충남 아산시 온양의 현충사에는 이러한 장군의 유덕을 추모하는 겨레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고 끊이기는 커녕 장군을 기리어 받드는 겨레의 정성은 억만년의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으리라.

가만히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며 그의 곧고 훌륭했던 업적을 생각해 본다.